

남도에서 새 인생 **新 전남인**

〈1〉프로로그

친환경·첨단기술·6차산업 접목

‘新 전남인’ 신바람 일으킨다

청정 자연 생산력·6차 산업 일자리 창출...매년 4만여명 유입
고령화 허덕이는 전남에 활력 주고 소득·삶의 질 향상 기여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개월 간(1~10월말) 전남으로 귀농한 가구는 2014가구, 귀농인은 2020명으로 1가구당 평균 1.38명이 전남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22개 시·군 가운데 고흥이 176명으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고, 나주도 귀농인 166명의 선택을 받았다. 같은 기간 전남 어촌으로 들어온 도시는민은 358가구 372명(가구당 평균 1.36명)이었다. 해안이 있는 16개 시·군 가운데 신안 78명, 여수 56명, 완도 52명 등으로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다.

전남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은 청정 자연이 가진 건강한 생산력이다.

특히 친환경 농업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이 4만6460ha로 전국 8만2000ha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기농생태마을도 31곳에 달하고 있다.

해조류, 패류, 어류 등 양식어장의 75%인 12만 720ha가 있으며, 여기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184억 5000t(2조6955억원)으로 전국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력에 더해 전남 농산어촌들이 현지에서 가공·유통하는 ‘6차 산업화’에 시동을 걸

면서 다양한 일자리 수요가 생겨나고 있는 점도 장점이다.

온택트 시대에 전남의 농수축산물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남도장터가 매출 300억원을 돌파하며 최대 성과를 냈고,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전남 어촌계와 도시민이 산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바이씨(buysea)’를 오픈하기도 했다. 도시 소비자와의 접촉면을 늘리면서 단순히 생산에 그쳐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았던 전남 귀농귀촌에 농수축산물 가공·유통, 관광 및 휴양 등의 기능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보다 미치지 못하는 농산어촌에 질 높은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한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지난 2013년 고향으로 귀농한 김원호씨는 채리와 매실을 키워 SNS를 통한 직거래로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고 식자재용 소스재료로도 일부를 공급하고 있다. 농업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귀농한 그는 농업 관련 서적과 주위 선배 귀농인들의 조언을 받아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작물인 매실을 키웠으며,

올해부터 채리까지 수확하면서 조만간 손익분기점을 넘을 전망이다. 현재 농산물의 판매와 식품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판매 법인과 농장 자체의 생산력과 농업수의 증대를 위한 생산 법인을 각각 설립해 운영중이다.

육군 중령 출신으로 서울에서 영광 백수읍 구수·대신마을로 귀여한 장문석 사무장은 2019년 전남 귀여귀촌지원센터의 ‘3박4일 전남어촌 탐구생활’과 ‘도시민 전남 어민되다’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한 뒤 귀여를 선택했다. 구수·대신마을 주민들의 후덕한 인심과 끈끈한 정에 매료된 장 사무장은 2019년 12월 마을 이장과 어촌계원들의 도움으로 마을의 빈집을 임대받아 가족 3명과 생활하며 마을에 적응해 나갔다. 마을 주민들의 지지로 어촌계원이 됐고, 구수·대신마을이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어촌계 사무장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정부에서 귀여귀촌 창업 사업대상자로 선정돼 임대받았던 집을 구매해 수리하고 있고, 배를 구입해 뱃머리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문석호’ 건조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농업의 가능성과 전남 농촌의 미래시장에 매료돼 매년 4만여명의 귀농귀촌인이 들어오고 있다”며 “보다 체계적인 귀농·귀촌 유치지원정책을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성공적으로 전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는 주기적으로 전남의 농산어촌을 찾아 주민, 귀농귀촌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열린 영암군 중앙촌마을 간담회.



전남귀여귀촌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어촌 탐구생활, 귀여 스톨엑스포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도시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귀농귀촌 지원책

‘수도권 토박이’ 2·3세를 모셔라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개편 원스톱 서비스...상담·창업교육 등

전남도는 수도권 거주자의 귀농귀촌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취업, 교육 등을 이유로 전남을 떠났던 2·3세대와 도시를 떠나 새로운 인생의 2막을 열고 싶은 수도권 토박이들이 대상이다.

일단 전남도는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 귀농·산·어·촌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원스톱 서비스에 나섰다. 어촌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남귀여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해 연동한다.

이번 개편된 홈페이지는 귀농귀촌에 관한 전남도와 시·군의 지원정책과 교육계획은 물론 주택·농지 정보 등 예비 전남 귀농귀촌인이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누리집을 반응형 웹으로 구축해 모바일, 태블릿 PC와 연동이 가능하며,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연결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도권 예비 귀농귀촌인에 대한 온라인 상담과 교육, 정책 홍보를 전담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수도권 청년층과 은퇴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유치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으로는 전남도내 및 광주 소재 기업 예비 은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민 귀농귀촌 창업과정’도 실시중이다. 지난 2019년 귀농귀촌 창업과정 교육성과를 분석한 결과 교육 이수자 중 106명 중 32%인 34명이 농촌에 정착했다. 56%인 59명도 지역이나 재배작물 선택을 고민하며 귀농귀촌을 준비 중이다.

농식품부의 ‘2021년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 공모에서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8억5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해 농촌 이주를 희망한 도시민의 임시 주거공간 조성과 농촌 정보제공, 체험 활동 등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귀농·귀촌 희망자는 6개월간 농촌에서 거주하

며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진군과 함께 농업·농촌 발전과 귀농귀촌 유치 확대를 위한 ‘전라남도 농촌사립 실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남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진군은 2021년 시범사업으로 강진군 대구면 청사촌 일원에 귀농귀촌 주거지 및 농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귀농귀촌 공공임대주택 20세대를 조성하게 된다. 전남도 6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42억원, 강진군 12억원 등 모두 6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강진지원에 문을 연 귀여학교는 귀여인, 귀여희망자를 대상으로 ‘제1기 어류양식 및 가공유통과정’ 교육생 모집해 어류양식 및 유통·가공과정, 패류양식 및 가공·유통과정, 무척추동물양식 및 가공·유통과정, 해조류양식 및 가공·유통과정의 교육을 실시했다.

도시민어촌유치지원사업을 전담할 전남귀여귀촌지원센터를 지정해 ‘전남 어촌 탐구생활(3박 4일)’, ‘도시민 전남 어민되다(한 달)’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848개 전남 어촌계 가운데 도시민 유치가 적극적인 선도 어촌들과 귀여 희망 도시민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사이버 전남 귀여 스톨엑스포를 개최하기도 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지난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3회 전남 귀여 스톨엑스포’에서는 여수, 보성, 영광, 해남, 강진, 완도, 고흥, 함평, 진도 등 9개 시·군 24개 어촌계 현황을 비롯 주민들의 귀여 유치 의지, 특산물 및 빈집 소개 등을 영상으로 제공해 82만 5178명이 조회하고, 9779명이 접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